

제22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및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등 안건 논의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9월 25일(수) 제22차 본회의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5일에 새롭게 본위원으로 위촉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강호동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회장, 동해구기선 저인망수협 김태훈 조합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특별히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장관식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은 오늘 보고 안건인 「지역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를 특별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데이터 및 인프라를 시각화하여 민간투자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식품 지도를 제작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 방안」 및 「농수산식품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에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업을 규모화하고, 미래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어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농어업을 1차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

에서 벗어나 농수산물식품 산업의 근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사무국 총괄기획팀	책임자	팀 장	이행은 (02-6260-1211)
		담당자	사무관	한소자 (02-6260-1212)

